

##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백 지 희<sup>†</sup>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양육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조사하고 양육의 영역별 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에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복합적인 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수준에 따라 군집화하고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 이들 군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4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에서의 내·외적 동기와 영역별 양육효능감(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내적 동기는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모든 영역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외적 동기는 일상체계조직, 훈육, 교육 영역의 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수준에 따른 군집은 네 개의 군집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가운데 '내적 동기가 높고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의 평균이 대부분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과도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내·외적 동기가 양육효능감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관계성을 보이며 각각의 동기가 보이는 수준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달라지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육 동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주요어 : 양육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영역별 양육효능감, 군집분석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 A07049881).

† 교신저자: 백지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jeehee@skku.edu

동기는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일으키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며 동력이다(Franken, 2007).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동기를 바탕으로 어떤 이유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Parks & Guay, 2009).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의 역할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로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인이 행동을 하는 원인을 활동의 내부에서 찾는 내적 동기이며, 두 번째 유형은 활동 그 자체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인정 등과 같은 이유로 행동이 일어나는 외적 동기이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초기의 동기 연구들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상반되는 별도의 두 가지 특성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외적으로 동기화되는 정도가 더 높으면 내적 동기는 떨어지고, 내적으로 동기화 될 때에는 외적 동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았다(Deci, 1971; Lepper & Greene, 1978). 한편, 최근에는 두 가지 유형의 동기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이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 중 한 가지 유형으로만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동기가 개인 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Lepper & Henderlong, 2000). 내·외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함께 작용하여 각각의 동기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동기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한다(Deci & Ryan, 2008).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들은 동기

를 가진다. 그러나 양육 동기는 부모관련 연구에서 관심 받았던 주제가 아니며,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에서 잠시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호르몬 등의 생물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Corter & Flemming, 2002)이라 생각하거나,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의심할 바 없이 여성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았던 것(Epstein, 1988)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애착 이론에서 간과했던 요소들에 관해 설명한 Bell과 Richard(2000)도 애착 이론이 어머니가 되는 것을 여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여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자가 겪게 되는 감정이나 동기를 소홀히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양육에 관련한 동기에 관한 조사는 일반적 양육과정에 관련한 내용이기보다는 특수한 양육 상황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조사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Green, Walker, Hoover -Dempsey, & Sandler, 2007)나 양육 기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 동기(Speth & Redmond, 1995) 등과 같다.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부모 대상의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안은진, 최효진, 유계숙, 2007)와 부모됨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정옥분 외, 2008; 조성연, 2007)가 부모의 동기와 관련한 연구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위탁 부모, 동성애 부부, 선택적 미혼모 등의 특정 유형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부모가 되기 위해 가지는 동기를 살펴보는 연구들(김봉선, 정희영, 2006; Bock, 2000)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부모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부모가 되고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동기의 정의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동기가 일반적인 양육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육 상황에서 가지는 부모의 양육 동기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백지희, 2011)는 일반적인 동기의 유형 구분과 같이 양육에서의 동기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이나 상황 자체에서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내적 동기로 정의하고, 자녀가 보여주는 성과나 발달의 결과, 혹은 자녀를 잘 키워 내가 좋은 부모라고 인정받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부모의 외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동기와 양육에서의 플로우경험, 효능감,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적 동기를 가진 어머니보다 내적 동기를 가진 어머니가 양육에 보다 몰입하고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특히, 내적 동기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외적 동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양육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예: 교육, 놀이, 훈육 등)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성지현, 백지희, 2011;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에서의 내·외적 동기가 여러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을 의미한다. 양육 효능감은 양육이라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효능감을 의미하지만, 양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효능감을 영역별로 측정하기도 한다(Bandura et al., 1996; Coleman & Karraker, 2003; Meunier & Roskam, 2009; Teti & Gelfand, 1991). 즉, 구체적인 양육 과제들을 비슷한 영역으로 묶고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영역별 양육효능감이라 한다(Coleman & Karraker, 2003).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요인화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와의 놀이, 자녀 교육, 애정 표현과 정서적 지원, 규칙적인 생활 형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성지현, 백지희, 2011. Meunier & Roskam, 2009; Coleman & Karraker, 2003).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지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장성오, 김용미, 2011;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영역에 따라 분석한 연구들도 양육의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효능감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며(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백지희, 2015) 양육효능감이 갖는 영역특수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이미경, 이윤경, 2014). 동기의 특성 상, 구체적인 행동과 장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동기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의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가 가

지는 양육 동기의 유형과 수준이 그들의 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은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가 양육에서 작용하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에 관계하는 동기적 요소를 규명하여 부모의 양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표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내·외적 동기의 복합적인 작용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두 가지 동기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두 가지 유형의 동기 모두 없는 상태인 무동기에서부터 내적 동기는 거의 없으나 외적 동기의 자기결정적 특성에 따라 외적(external), 부과된(introjected), 확인된(identified), 통합된(integrated) 조절의 네 가지 상태로 구분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내적 동기로 구분하였다(Deci & Ryan, 2000). 그리고 동기의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을 시도하고자 한 연구들은 이들 이론을 근거로 각 집단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요인을 구분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Ryan & Connell, 1989, Vallerand et al., 1992).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을 구성하는 요인의 타당성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해당 구인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여은실, 2009). 따라서 이미 분류된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내·외적 동기를 각각 측정 한 후 평균이나 중앙값에 의하여 집단을 분리하거나 삼분위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적용하기는 쉬우나 손실되는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인위성과 검증력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Maxwell & Delaney, 1993). 이에 중간에 분포하는 값들을 제외하지 않고도 변수의 특성을 활용하여 집단화하는 군집분석은 현재 상황을 대체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Bergman, 1998). 군집분석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변수 간의 거리나 상관계수 등에 근거하여 집단화하는 분석방법이다. 동기의 세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자 한 선행연구에서 군집분석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합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Boiche et al., 2008; Vansteenkiste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양육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수준과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동기 이론에서는 한 개인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지만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커질 때 자신의 행동이 가장 자율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Bandura & Schunk, 1981; Ryan & Deci, 2000). 아버지의 양육에서 동기와 유능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소영, 2010)에서도 아버지의 내적 동기가 아버지의 행동조절이나 의사결정에 내리는 유능성과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내·외적 동기는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에게 대하는 정서적, 행동적지지 등의 양육에 관련한 주요 변인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유형의 동기의 개별적 역할 탐색에서 더 나아가 내·외적 동기의 수준에 따라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여 탐색한 연구에서도 내적 동기의 수준이 외적 동기보다 높은 유형의 집단에서 개인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애옥, 박성욱, 2013; 문태형, 2013; Nota, Soresi, Ferrari,

& Wehmeyer,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영역별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의 수준에 의해 구분된 군집 유형에 따라 영역별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함께 탐색할 것이다.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의 어머니가 양육에서 보이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어떠한 양육의 영역별 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양육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어떻게 군집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내·외적 양육 동기의 수준에 따른 집단은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는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의 수준에 따른 집단은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4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유아교

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비비례 할당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35.7세로 취업모 238명(54.5%), 미취업모 199명(45.5%)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 0.7%, 고졸 25.9%, 대졸 64.3%, 대학원졸 이상이 8.7%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1.1%, 100-199만원 8.4%, 200-299만원 20.6%, 300-399만원 20.8%, 400-499만원 20.6%, 500만원 이상 28.4%이었다. 연구대상의 자녀는 남아 226명(51.7%), 여아 211명(48.3%)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3세 137명(31.4%), 만 4세 154명(35.2%), 만 5세 146명(33.4%)으로 평균 월령은 53.5개월이었다.

### 연구도구

#### 내·외적 양육 동기 척도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 측정은 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Work Preference Inventory(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의 문항을 양육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한 후 타당화한 도구(백지희, 2011)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동기 측정도구는 부모가 양육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도전감에 동기 부여되는 내적 동기 요인과 다른 사람이나 자녀가 주는 인정이나 보상을 바탕으로 동기 부여되는 외적 동기 요인으로 구분된다. 측정도구의 문항은 내적 양육 동기 7문항(예: ‘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재 내가 가진 양육지식과 기술이 늘어나는 양육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나의 호기심은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원동력이 된다’)과 외적 양육 동기 8문항(예: ‘나에게 자녀양육의 성공이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아이가 보여주는 결과에 강하게 동

기 부여 된다)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내적 양육 동기 .75, 외적 양육 동기 .74이었다.

### 영역별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Meunier와 Roskam (2009)의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를 성지현과 백지희(2011)가 우리나라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로 측정하였다. K-EGSCP는 양육 상황에 따른 0-6세 영유아 부모의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척도의 구성요인은 영역별 양육효능감 5요인(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과 관련 인지구조 2요인(부모의 책임, 결과 통제)으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역별 양육효능감 요인 22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별 문항은 애정 효능감 5문항(예: '내 아이는 나에게 매우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일상체계조직 효능감 4문항(예: '나는 내 아이가 규칙적으로 일정을 해내게 하지 못한다(역문항)'), 훈육 효능감 5문항(예: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역문항)'), 놀이 효능감 5문항(예: '나는 아이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효능감 3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적절한 수준의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전체 신뢰도 .91, 하위요인별 애정 .80, 일상체계조직 .82, 훈육 .75, 놀이 .89, 교육 .83이다.

###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문항 내용의 적절성 및 문항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문항의 구성 및 질문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는 표집된 연구대상에게 사전 설명과 연구에 관한 동의를 구한 후 실시되었다. 총 4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질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437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 자료분석

본 자료의 전반적인 분석을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와 양육효능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양육 동기와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가지는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집단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Ward의 방법에 따라 계층적 군집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한 후 K-means 방법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이민영, 2009), 분류된 유형별 집단에 따른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와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관계

양육에서 어머니가 갖는 내·외적 양육 동기와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동기는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높은 평균값(내적 동기:  $M=3.84$ ,  $SD=.64$ , 외적 동기:  $M=3.26$ ,  $SD=.67$ )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애정, 놀이, 교육의 영역에서 비슷한 평균값( $M=4.30\sim 4.31$ )을 나타냈다. 일상체계조직영역( $M=4.23$ ,  $SD=.89$ )은 그에 반해 다소 낮았으며 훈육 영역이 가장 낮은 평균값( $M=3.84$ ,  $SD=.80$ )을 보였다.

어머니의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가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내적 양육 동기는 양육효능감의 영역에 따라 전체적으로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양육에서의 효능감도 높아지는 정적인 상

표 1.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와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 $N = 437$ )

	<i>M</i>	<i>SD</i>
내적 양육 동기	3.84	.64
외적 양육 동기	3.26	.67
영역별 양육 효능감	애정	4.31 .68
	일상체계조직	4.23 .89
	훈육	3.84 .80
	놀이	4.30 .89
	교육	4.31 .94

표 2.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와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 $N = 437$ )

	영역별 양육효능감				
	일상	애정	체계	훈육	놀이
내적 동기	.44**	.19**	.26**	.44**	.21**
외적 동기	-.13	-.14**	-.18**	-.01	-.17**

\*\* $p<.01$

관관계를 보였다. 양육효능감의 영역에 따른 내적 양육 동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내적 동기와 애정( $r=.437$ ,  $p<.01$ )과 놀이( $r=.441$ ,  $p<.01$ )에서의 양육효능감이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어 훈육( $r=.257$ ,  $p<.01$ ), 교육( $r=.211$ ,  $p<.01$ ), 일상체계조직( $r=.192$ ,  $p<.01$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서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양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호기심과 도전감을 가지는 정도가 높으면 양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어머니의 외적 양육 동기는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혹은 외적 양육 동기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외적 양육 동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과 놀이에서 어머니가 가지는 양육효능감은 외적 양육 동기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이 외에 자녀를 훈육하는 데서 느끼는 양육효능감은 외적 양육 동기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관계( $r=-.184$ ,  $p<.01$ )를 보였으며, 교육( $r=-.173$ ,  $p<.01$ )과 일

상체계조직( $r=-.143, p<.01$ )에서의 양육효능감도 외적 양육 동기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자녀가 보여주는 성과에 의미를 두고 양육을 하는 정도가 높은 어머니는 훈육이나 교육, 자녀의 일상생활을 조직해내는 등의 양육 상황에서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 수준에 따른 군집분석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동기 수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동기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양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외적 동기의 유형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조사된 어머니의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의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한 후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Ward의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화일정표의 계수와 도표를 바탕으로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군집화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4~6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K-means 방법에 따라 군집의 수를 4개에서 6개로 설정하여 결과를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군집의 해석가능성과 군집별 사례수를 고려해보았을 때 4개 군집이 최종 군집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 군집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각의 군집을 해석하면, 군집 1은 어머니의 내적 동기는 높으나 외적 동기는 낮은 집단(26.1%), 군집 2는 내적 동기는 낮으나 외적

표 3. 내·외적 동기의 군집에 따른 평균과 분포

	군 집			
	1 HI_LE (n=114)	2 LI_HE (n=132)	3 HI_HE (n=105)	4 LI_LE (n=86)
내적 동기	.61	-.49	.92	-1.18
외적 동기	-.65	.37	1.13	-1.09
분포	26.1%	30.2%	24%	19.7%

주 1. 표기된 값은 표준화된 z점수임( $M=0, SD=1$ )

주 2.

HI\_LE: 내적 동기는 높으나 외적 동기는 낮은 집단

LI\_HE: 내적 동기는 낮으나 외적 동기는 높은 집단

HI\_HE: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높은 집단

LI\_LE: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낮은 집단

동기는 높은 집단(30.2%), 군집 3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높은 어머니의 집단(24%), 군집 4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낮은 집단(16.7%)으로 볼 수 있다.

내·외적 양육 동기의 수준 별 집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의 유형에 따라 영역별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증하였다. 각 군집별 영역별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군집은 모든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군집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양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내적 동기가 높고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 집단은 나머지 세 개 집단 중 외적 동기의 높고 낮음



표 4.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 수준 별 군집의 기술통계치와 군집 간 양육효능감의 차이 (N = 437)

양육효능감	군집	M	SD	F	Scheffe
애정	HI_LE	4.78	.52	18.39***	HI_LE > LI_HE
	LI_HE	4.30	.62		HI_LE > LI_LE
	HI_HE	4.69	.64		HI_HE > LI_HE
	LI_LE	4.26	.80		HI_HE > LI_LE
일상체계조직	HI_LE	4.58	.75	10.67***	HI_LE > LI_HE
	LI_HE	3.98	.90		HI_LE > HI_HE
	HI_HE	4.25	.93		HI_LE > LI_LE
	LI_LE	4.11	.85		
훈육	HI_LE	4.13	.71	10.96***	HI_LE > LI_HE
	LI_HE	3.58	.71		HI_LE > LI_LE
	HI_HE	3.90	.81		HI_HE > LI_HE
	LI_LE	3.77	.89		
놀이	HI_LE	4.66	.74	24.16***	HI_LE > LI_HE
	LI_HE	3.95	.84		HI_LE > LI_LE
	HI_HE	4.60	.79		HI_HE > LI_HE
	LI_LE	3.98	.96		HI_HE > LI_LE
교육	HI_LE	4.62	.83	8.14***	HI_LE > LI_HE
	LI_HE	4.05	.91		HI_LE > LI_LE
	HI_HE	4.36	1.02		
	LI_LE	4.24	.92		

\*\*\*  $p < .001$

에 관계없이 내적 동기가 낮은 집단과는 다섯 가지 영역의 양육효능감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영역별 양육 효능감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집단은 내적 동기는 낮고 외적 동기는 높은 집단이었다. 단,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을 하는 영역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모두 낮은 집단이 효능감의 정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세 영역에서 군집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과 놀이에 서의 양육효능감의 군집별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영역에서는 내적 동기는 높으나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이 내적 동기는 낮으나 외적 동기는 높은 집단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낮은 집단 간에 차이( $p < .001$ )를 보였다, 그러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모두 높은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모두 높은 집단은 내적 동기가 낮고 외적 동기는 높은 집단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낮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였다.

일상체계조직 영역에서는 내적 동기는 높으나 외적 동기는 낮은 집단이 그 외의 세 집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였으며 이외의 집단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훈육 영역에서는 내적 동기는 높으나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이 내적 동기가 낮고 외적 동기는 높은 집단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높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나타냈다. 또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모두 높은 집단은 내적 동기가 낮고 외적 동기가 높은 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서의 양육효능감에는 내적 동기는 높으나 외적 동기가 높은 집단이 내적 동기는 낮으나 외적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낮은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였으며, 이외의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양육에서 나타나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조사하고 양육의 영역별 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인간의 동기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 한 가지 측면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동기가 각각 높고 낮음

의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론(Lepper & Henderlong, 2000)에 따라 양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도 복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를 군집화하고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 이들 군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와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양육 동기는 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의 모든 영역의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외적 양육 동기는 일상체계조직, 훈육 그리고 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동기에 관련한 일반적인 연구들(김아영, 2002; 성은현, 2006)이 내적 동기가 개인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듯이 양육에서도 어머니의 내적 동기는 양육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외적 양육 동기와 부적관계를 보인 세 개 영역은 주로 자녀가 보여주는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많은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결정성 즉, 내 행동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자율성의 작용이 줄어들 수 있다(Ryan & Deci, 2000). 따라서 자녀가 규칙을 잘 따르는가, 자녀가 나의 말을 잘 듣는가, 자녀가 잘 학습하는가와 같은 행동 영역은 자녀가 보여주는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외적 보상이나 결과에 관한 의존이 높을수록 어머니 스스로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즉 양육 효능감은 낮게 평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의 활용은 개인의 정서적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육에서 어머니가 가지는 내적 동기가 양육효능감의 전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양육에서도 즐거움이나 재미와 같은 내적인 동기화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외적 양육 동기와 일상체계조직, 훈육, 교육 영역에서의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 관계는 외부의 보상이나 평가, 그리고 자녀가 보여주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 스스로의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관계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가지는 긍정적인 양육에 관한 자기 인식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안지영, 2001; Mondell & Tyler, 1981)을 고려할 때, 부모들에게 주변 의식이나 보상보다 양육 상황 자체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끼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내적 양육 동기와 외적 양육 동기의 수준에 따라 동기의 유형이 구분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 결과, '내적 동기가 높고 외적 동기는 낮은 집단', '내적 동기는 낮으나 외적 동기는 높은 집단',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높은 집단',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낮은 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흔히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의 세 개 단위로 구분된다(Deci & Ryan, 2002). 그리고 외적 동기는 자기결정의 정도에 따라 외적 조절, 내적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의 네 단계로 다시 구분하고 자율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문항을 작성하여 해당 요인의 점수가

높을 경우 그 단계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방법의 측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박병기, 이종욱, 홍승표, 2005; Ryan, 2004).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이들 동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김아영, 2002)처럼 각각의 동기를 인위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위험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지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특성을 반영하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연구자가 임의의 지점(사분위수, 특정 상하위 퍼센트, 평균값 등)을 지정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집단의 특성을 분석해낼 수 있었다. 이에 군집분석을 활용한 집단의 특성 분류가 양육에서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수준에 따른 유형을 분석해내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연구변인의 특성을 보다 경험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의 집단 유형에 따라 영역별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각 집단은 모든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군집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모든 영역에서 내적 동기가 높고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의 양육효능감 평균이 가장 높은 값을 보여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표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높은 집단은 외적 동기의 높고 낮음에 따른 집단 차이에도 영역별 양육효능감에서의 대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내적 동기가 낮은 집단은 외적 동기의 높고 낮음에 따른 집단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서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양육효

능감이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적 동기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백지희, 2011, 이소영, 2010). 따라서 무엇보다 내·외적 양육 동기 중 양육효능감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동기요소는 내적 동기임을 시사한다.

한편, 일상체계조직 영역에서는 내적 동기가 높다고 하더라도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는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앞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외적 동기의 역할에 의하여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상체계조직이란 부모가 유아에게 하루 일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주고 유아가 규칙적으로 이를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Meunier & Roskam, 2009). 따라서 내적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내적 동기) 하더라도 자녀의 하루일과 수행결과(외적 동기)에 따라 자신의 양육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외적 동기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적 동기가 높고 외적 동기가 낮은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무엇보다 일상체계조직 영역에서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보여주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육에서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유형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분석은 부모가 양육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볼게 하였다. 특히, 애정표현이나 놀이상황 참여와 같은 영역에서는 내적 동기가 높은 유형의 집단은 그렇지 않은 모든 집단과의 차이를 보여, 부모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과 호기심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기는 다양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Franken, 2007)하므로 부모의 양육에의 동기를 알아보는 것은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낳게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동기의 역할이 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에서는 동기의 역할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가지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탐색해봄으로써 양육에서는 동기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된 양육에서의 동기에 관한 정보는 현대 사회의 부모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가 되어 효과적인 양육 실재를 위한 교육과 자료를 제작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를 어머니로 보고 연구대상을 어머니로 제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향후 양육에서의 동기적 측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는 양육 동기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동기라는 변인을 새롭게 다루었다. 그러나 외적 동기에서 부모가 외부에서 얻게 되는 인정이나 평가를 자녀가 보여주는 결과와 동일한 요인으로 묶어 외적 동기로 명명하고 있다.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는 부모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녀에 대한 평가 혹은 자녀가 보여준 결과에 대한 부모 자신의 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에 동기원으로 작용하는 내용

을 조사하여 동기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프랑스 어머니의 양육 참여, 양육효능감 및 양육불안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34(6), 539-555.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 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6(4), 169-187.

김애옥, 박성옥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결정성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연과학*, 24, 187-219.

문태형 (2013).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지능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22(4), 131-145.

박병기, 이종옥, 홍승표 (2005).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백지희 (2011). 긍정적 양육 경험을 위한 목표, 피드백, 동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백지희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관련 변인 탐색. *어린이미디어 연구*, 14(4), 173-195.

성은현 (2006). 내·외동기, 자기효능감, 창의성의 관계. *아동학회지*, 27(5), 183-193.

성지현, 백지희 (2011).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안은진, 최효진, 유계숙 (2007). 성별과 세대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3.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여은실 (2009). 자기결정성이론의 무동기 개념의 타당성 탐색: 동기에 관여하는 목표와 과제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영 (2009).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의 이론 고찰과 응용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 이윤경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탄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201-224.

이소영 (2010). 유아기 아버지의 자기결정성과 부모역할 동기 및 역할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오, 김용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도르프교육연구*, 3(1), 91-111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73-97.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조성연 (2007).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28(3), 219-233.

- Amabile, T. M., Hill, K. G., Hennessey, B. A., & Tighe, E. M. (1994).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50-967.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ell, D. C., & Richard, A. J. (2000). Caregiving: The forgotten element in attachment. *Psychological Inquiry*, 11, 69-83.
- Bergman, L. R. (1998). A pattern-oriented approach to studying individual development: Snapshots and processes. In R. B. Cairns, L. R. Bergman, & J. Kagan (Eds.), *Methods and models for studying the individual* (pp. 83 - 122). Thousand Oaks, CA: Sage.
- Bock, J. D. (2000). Doing the right thing? Single mothers by choice and the struggle for legitimacy. *Gender and Society*, 14, 62-86.
- Boiche, J. C. S., Sarrazin, P. G., Grouzet, F. M. E., Pelletier, L. G., & Chanal, J. P. (2008). Students' motivational profiles and achievement outcomes in physical education: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 688-701.
- Cortner, C. M., & Fleming A. S. (2002). Psychobiology of maternal behavior in human being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2nd ed., pp. 141-18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 14-23.
- Epstein C. F. (1988). *Deceptive distinctions: Sex, gender, and the social order*. Yale University Press.
- Franken, R. E. (2007). *Human motivation*. Florence, KY: Wadsworth Publishing.
- Green, C. L., Walker, J. M. T.,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2007). Parents' motivations for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An empirical test of a theoretical model of parental invol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532-544.
- Lepper, M. R. & Greene, D. (1978). Overjustification research and beyond: Toward a means-ends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 motivation. In M. Lepper & D. Greene (Eds.), *The hidden costs of reward* (pp. 109-149). Hillsdale, NJ: Erlbaum.
- Lepper, M. R., & Henderlong, J. (2000). Turning “play” into “work” and “work” into “play”: 25 years of research on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The search for optim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C. Sansone & J. M. Harackiewicz (Ed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The search for optim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pp. 257-30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xwell, S. E., & Delaney, H. D. (1993). Bivariate median splits and spurious statistical signific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3, 181-190.
- Meunier, J. -C.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8, 495-511.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Parks, L. & Guay, R. P. (2009). Personality, values, and mot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675-684.
- Ryan, R. M. (2004). The Self-Regulation Questionnaires. <http://www.psych.rochester.edu/SDT>
- Ryan, R., & Connell, J.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Schunk, D. H., Pintrich, P. R., & Meece, J. L. (2008).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Spoth, R., & Redmond, C. (1995). Parent motivation to enroll in parenting skills programs: A model of family context and health belief predict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294-310.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t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ere, N. M., Sencal, C., & Vallie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Vansteenkiste, M., Sierens, E., Soenens, B., Luyckx, K., & Lens, W. (2009). Motivational profiles from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The quality of motivation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 671-688.

1차원고접수 : 2016.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2. 22.  
최종게재결정 : 2016. 02. 29.

## Profiles of mother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domain-specific self-efficacy in parenting

Baek Jeehee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parenting and their self-efficacy with regarding to nurturance, instrumental care, discipline, play, and teaching. Also, the two types of motivation can be activated in a complex way according to their levels. Cluster analysis revealed types of patents' motivation based on the nature of motivation, a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parenting self-efficacy. Mothers ( $N=437$ ) completed questionnaires along with a parenting motivation scale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K-EGSCP), a scale for domain-specific self-efficacy in parent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s among intrinsic motivation and all the domains of self-efficacy were positive. However, extrinsically motivated mothers were likely to show low parenting self-efficacy in instrumental care, discipline, and teaching. The four distinct motivational groups were as follows: high intrinsic/high extrinsic motivation, high intrinsic/low extrinsic motivation, low intrinsic/high extrinsic motivation, and low intrinsic/low extrinsic motivation. A multiple analysis of variance revealed that the groups differed significantly on all the domains of self-efficacy with regard to parenting.

*Key words* : Parenting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Cluster analysis